

“의학교육의 질 하락 우려...인프라 확충 절실”

‘지방대 의대 정원 확대’ 남은 과제

전남대와 조선대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방침에 걸맞은 의료 인프라 확충을 주문하고 있다.

수업공간, 교수 확보, 기자재 확충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의료교육 부실을 막고 지역 의료인력 양성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의대들 “증원 따른 인프라 확충 절실”=조선대와 전남대는 정부의 후속 조치에 따라 지역 의료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의학계에선 현재보다 1.7배가량으로 의대 정원이 급증하면서 시설, 기자재 부족이 심화돼 의학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 대학들은 의대 정원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의 후속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전남대의 경우 의예과는 대학본부에 있는 용봉캠퍼스에서 2년을 교육을 받은 후 학동 캠퍼스에서 본과 수업이 진행돼 증원에 따른 교실 확보 등 추가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임교수 역시 현재 185명인데, 정원이 늘어나면서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는 실험 실습실을 개조하고, 기자재를 확충하는 등 증원에 대비할 계획이다.

조선대의대 전임교수는 165명으로 정원에 비해 적은 수는 아니지만,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전공별로 임상 교수를 더 확보해야 한다.

전남대·조선대 “시설·기자재 부족 심화...정부, 전폭 지원 나서야”

입시학원 “1등급만으로 정원 미달될 수도...수도권과 격차 클 듯”

조선대 관계자는 “국립대와 마찬가지로 사립대 역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런 사정을 감안해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교수·시설 확충을 위한 필요 예산이 얼마인지 등을 조사해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들은 이와 별도로 교수진을 보강하고, 강의실과 실험·실습 공간을 확보하는 등 늘어난 학생들을 위해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한다.

◇대학들 신입생 전형계획 반영=새 정원은 당장 하반기에 2025학년도 대입전형을 치를 올리고 3학년들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공식 발표하면서 각 대학은 곧바로 신입생 모집을 위해 필요한 후속 절차를 들어갈 예정이다.

먼저 대학들은 학칙을 개정해 이번에 정부가 배정한 의과대학 정원을 반영한다. 학칙을 개정하려면 개정안 공고와 이사회 심의·의결 등 학교별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학들은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받아 ‘2025학년도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변경

하게 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부모·수험생이 입시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끔 대교협 등 ‘학교 협의체’가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학 신입생에게 적용되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고2 4월 말까지 예고해야 하는 셈이다.

특히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인재 선발 비율 확대’를 강조한 만큼 비수도권 대학들은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도 함께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변경된 내용은 통상 5월 하순 공고되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에 최종적으로 반영된다.

한편, 의대 합격선은 지역의 경우 ‘지역인재전형 60% 이상 선발’을 적용할 경우 일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방권 의대 수능 수학 1등급만으로 지역인재전형 인원을 채우기 힘들 수도 있다”며 “상황에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권의 상당한 점수 격차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연합뉴스



쓰레기 태우다 그랬나 20일 광주시 동구 학동 미양산에서 산불이 나 소방당국이 헬기를 이용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불은 임야 2만5000여㎡를 태우고 1시간 30여분 만에 꺼졌다. 소방당국은 아산 인근 밭에서 주민이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날려 산불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화인을 조사 중이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전남 지역 학생 줄었는데 학폭은 늘었다

지난해 검거 학생 646명 전년비 16.6% 증가...소년범 다시 2천명대

전남에서 저출산으로 학령인구는 감소했지만 학교폭력은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학생은 총 646명에 달한다.

지난 2020년 460명이던 전남의 학교폭력 가해자는 2021년 621명으로 급증했다가 2022년 554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16.6% 증가했다.

전남지역 소년범도 2000명대를 유지했다. 지난해 2540명이 소년범으로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2020년 19만 3373명이었던 전남지역 학생이 매년 줄어 지난해 18만 194명으로 감소한 것에

비하면 소년범비율과 학교폭력 증가세는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학생수가 많은 1급지(목포, 여수, 순천)와 2급지(나주, 광양, 고흥, 해남, 무안) 학교에서 전남 지역 학교폭력 가해자의 78%(504명)가 붙잡혔다.

학교폭력 유형으로는 물리적 폭력이 329건으로 절반에 달했고 성폭력(162건), 감질(58건), 협박(40건)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고등학생(209명) 가해자가 가장 많이 적발됐고, 중학생(170명), 특수학교·대안학교·외국인학교 학생(155명), 학교밖청소년

(59명), 초등학생(53명) 순이다. 학교폭력은 학교(166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노상·골목(71건), PC방·오락실 등 놀이시설(57건), 주택·아파트 주거지역(37건)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남경찰청은 유형·지역·시간 등을 분석해 체계적인 학교폭력 예방·감소 정책을 추진해 올해 학교폭력 검거 사례를 전년 대비 1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김종신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 과장은 “전남 지역 일선서범 학교폭력 문제점을 진단해 학교폭력 감소정책을 자체 수립토록 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오는 11월 목표달성을 평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학동 4구역’ 철거 1년4개월만에 마무리 수순

정도프라자 명도집행 후 해체 시작

‘광주 학동 붕괴 참사’가 발생한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에 조만간 아파트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4일부터 광주시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 내 ‘정도프라자’ 건물 철거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1월 해체 공사를 재개한 지 1년 4개월만이다.

현재 철거율은 99.49%로, 전체 철거 대상 건물 594개동 중 591개동이 철거됐다. 나머지 정도프라자 건물과 옛 학동주민센터 건물, 남광교회 체육관 3개 건물을 해체하면 철거 작업이 모두 끝난다.

이 중 정도프라자 건물은 지하 2층·지상 6층, 연면적 5062.8㎡로 남은 건물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조합 측은 지난 5일 관할청인 광주시 동구에 정도프라자 철거 착공 신고를 했으며 14일부터 해체 작업에 돌입했다.

정도프라자 건물은 소유자가 재개발조합의 보상금 산정액이 부족하다며 이주를 거부해 철거되지 않고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광주지법으로부터 강제 명도집행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 2021년 6월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 공사현장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1998년 세워진 용봉초 육교도 사라진다

27년 된 광주시 북구 용봉초 육교가 철거된다.

20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북구 용봉동 용봉초 육교 철거를 위한 공사가 22일부터 시작된다.

용봉초 육교는 총 길이 24.7m로 1998년 세워졌다.

북구는 인근 패션거리 상인회가 ‘가게 앞을 가리니 철거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계단식 이어서 교통약자에게 불편을 준다는 점 등을 고

려해 철거를 결정했다.

광주에서 2019년부터 5년간 철거된 육교는 6개에 달한다.

2019년 무량육교(광산구)가 철거됐고 2020년 창촌1육교(서구), 2021년 수창육교(북구), 중앙육교(동구)가 사라졌으며 2022년 늘푸른구름다리(서구), 2023년 계림육교(동구)가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